

로저 그린 박사, 미국 기독교, 세션 18,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

©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미국의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저는 강의요목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상기시켜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는 강의 14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현대 미국 1
918년에서 현재까지의 과정의 4부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14,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

제가 한 일은 단지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까지 미국에서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광범위한 문화권에서 보였던 삶의
 종류는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변명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미래에 대해 매우 확신했고 미래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매우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우리는 다윈주의를 언급했고, 그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지만, 특히 사람들이 대거 도시로 몰려와 도시에서
 일하면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그리고 증가하는 종류의 세속화도요.

그러니 이제 자유주의는, 그런데, 우리가 고전적 개신교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확한 라벨을 붙이기 위해서요. 고전적 개신교 자유주의는 미국의 신학교, 설교단, 출판물 등에서 기독교 신학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거기서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B 번호, 기독교를 구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에서 멈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시작하지 않았죠?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죠? 좋아요, 기독교를 구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입니다. 그럼 간단히 소개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세계의 맹공격과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의 맹공격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 선의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종의 굴복 위기에 처해 있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매우 진보적인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지적 맹공격이 있기 때문에 굴복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기독교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고전적 개신교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 운동에 기독교를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구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미국에서 실행 가능하고 건강하며 지적인 종교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고전적 개신교 자유주의가 세 가지 전략을 고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전략이지만, 미국에서 기독교를 구하고 모든 맹공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기독교를 다시 살리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전략은 역사적 과정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과정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우선, 우리가 무언가가 신경화되었다고 말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무슨 뜻인가요? 무언가가 신경화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신경화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언가가 신경화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언가가 일종의 신경화라고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역사적 과정을 신경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기독교를 구하려면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을 미국에서 기독교를 구하는 방법으로 사용합시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이 역사적 과정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현대 세계에서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과정을 신경화한다고 부릅니다. 좋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이것을 설교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책에서 이것에 대해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신이 주로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신에 대해 알고 싶고, 다시 한번 신 중심적인 종교를 원한다면,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신이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신이 자신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또한 인간 속에서 자신을 육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입니다.

신이시여, 우리는 인간을 보고 , 인간 속에서 신의 성육신을 봅니다. 그리고 신을 보는 역사, 신을 이해하는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이미 어떤 종류의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야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은 기독교를 구하고, 기독교를 구속하려 하고, 이것이 그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점은, 그가 신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에 대한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점은 그가 신, 하나님과 너무나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너무나 접촉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친절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신성과 역사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구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하나님과 역사 사이의 놀라운 관계의 화신이며, 그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역사적 과정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세상에서 이루시는 역사적 과정을 매우 잘 이해하는 인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예수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접촉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왕국 언어를 좋아했습니다. 왕국이 역사적 과정에서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한 왕국 언어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신학적 방식으로, 즉 그리스도에 의해 확립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을 역사 속의 하나님의 역사적 과정의 진화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예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꽤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는 성경적 언어가 사용되지만, 기독교를 구하려는 이 사람들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좋아요, 역사적 과정을 신격화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펼칩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설교합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다. 그들은 성경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성경은 어떤 종류의 신학적 작품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거나 교리적으로 해석한다면 해석학 측면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 때 역사적 문서로 읽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베일을 벗기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방법은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이며, 우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종교적 경험은 역사적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지배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경험에 큰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종교적 경험은 죄, 구원, 성화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종교적 경험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종교적 경험을 봅니다.

좋아요, 그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성경이라는 문서를 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역사를 전개하는 역사적 문서로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삶과 관련하여 그것으로부터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 메시지에는 당신이 성경으로부터 얻어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들은 역사 전반에 걸쳐 사실이었고,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개인적 도덕성과 사회적 윤리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은 분명히 사랑의 원칙일 것입니다. 신은 사랑하는 신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서사에서 이것을 보고 역사적 서사가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원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원칙입니다. 그러니 그 원칙을 얻어서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 윤리에 적용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이 당신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진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역사적 과정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진보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바라보면서 인류가 진보하고,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20세기가 기독교의 세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20세기가 위대한 기독교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과정을 신격화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20세기가 1차 세계대전으로 1914년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가 위대한 기독교의 세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일종의 위대한 신의 역사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학으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 신학을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너무 잔혹했고 등등이니깐요.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과정을 신격화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역사적 과정이 결길로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과정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홀로코스트로 정말, 정말 엉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러면 역사적 과정을 신격화하는 것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과정을 신격화한 신학자와 목사가 많았고, 그게 가야 할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그것을 주입할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들이 성경을 읽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설교자들이 그 메시지를 설교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국에서 기독교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거의 무너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첫 번째 종류의 전술 또는 첫 번째 종류의 전략입니다.

좋아요, 역사적 과정을 신격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이 있고, 여기서 몇몇 이름을 다룰 겁니다. 먼저 세 가지를 다루고, 그런 다음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전략을 전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건 개신교 프로젝트와 더 비슷해요. 로마 가톨릭교회는 남북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민자 교회입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통합하는 중이고, 그러다가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 사실 개신교 프로젝트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고든 같은 곳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곳은 이것, 이것, 발견에 대한 반응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대학과 그런 장소의 설립은 미국 기독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더 멀리 떼어놓는 것으로 여겨진 자유주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볼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한 사람으로의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은 한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지 않았지만, 신은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성육신은 예수의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신약, 교회 역사, 그리고 미국의 역사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추적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이 그런 종류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인간의 인격으로 육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설교하는지 등을 볼 수 있는 역사를 통해 구체적인 방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나요? 네, 에모리. 네.

복음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가 등장할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 중 일부는 우리가 될 이 세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이 세 가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다른 강의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정통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Rauschenbusch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지만, 그런 다음 근본주의와 복음주의가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것입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운동에서 언급하는 아이디어에 크게 반응할 것입니다. 역사적 과정을 신격화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에서 기독교를 구하고 다시 강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카터가 언급했듯이, 그것은 개신교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교는 이때에 이것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윤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윤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네, 그게, 알다시피, 여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세 가지에 대해, 저는 여러분이 특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서로 교차합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자유주의 개신교의 저축 전략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뿐이므로, 여러분께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알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알겠어요.

좋아요, 윤리를 강조한 것에 대해. 기독교의 핵심 시험이며, 이것은 거의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삶. 기독교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는 삶과 당신이 사는 삶의 종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강조한다면 기독교를 구하고 실제로 실행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선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좋아요, 여기서 누가 모범이 될까요? 물론, 다시 한번, 예수가 모범이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삶은 살아야 하는 대로, 예수를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본보기를 갖게 될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 예수가 판단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예수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전부여야 하고, 판단은 그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판단에 대해 긴장했습니다. 네, 헤일리? 맞아요.

그들은 예수가 신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세 가지 모두에 기본적으로 사실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신으로부터 보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지만 그는 육신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당신의 본보기가 됩니다.

예수는 당신의 도덕적 모범, 윤리적 모범이 됩니다. 그러니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정말, 정말 중요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요 학교 운동은 윤리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 중 일부에게 어느 정도 인수당했습니다. 윤리를 강조하려면 사람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측면에서 사람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좋아요, 여기의 예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나온 것인데,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교파인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래전, 저는 이 교회의 성인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에 대한 일요 학교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성인 일요 학교 모임에서 4주, 4주일 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이걸, 글썄요,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일요일에 갔고, 요한 복음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성경을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에 성경을 가져가나요? 제 말은, 그들은 이런 연관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물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연관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재빨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교회 어딘가에서 찬장이나 다른 곳에 숨겨져 있던 성경 두 권을 발견했고, 그래서 성경 두 권을 찾았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 복음을 찾는 것은 꽤 큰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어떤 성경을 사용하는지 봅시다."라고 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1009페이지로 넘어가죠." 첫 번째 일요일은 정말 어려웠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요점을 파악한 것 같지만, 왜 초대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한 게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왜 그런 걸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약간 당혹스러운, 아마도 당혹스러운 작은 모험을 여기서 하게 됐어요. 네 번째 일요일에 공부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갔는데, 아이들을 위한 일요일 학교 수업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다양한 연령대였고, 두세 개의 방에서 아직도 수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들의 수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두세 개의 방에서 미키 마우스, 도널드 덕, 데이비 크로켓 같은 만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화를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그 만화를 꽤 오랫동안 보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우연히 교회에 있는 누군가에게 일요일 학교 수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일요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금지된 일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만화를 보여주고, 우리는 이 만화에서 그들이 기독교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화가 성경보다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더 나은 도덕적 이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사용할까요? 누가 생각할까요? 그래서 만화, 제가 만화라고 말했고,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저를 다시 초대하지 않았습시다. 저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매우 이상한 종류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매우 자유주의적인 교회였고, 기본적으로 만화를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성경을 사용할까요? 한 교회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까요? 제가 시간을 지켜봐야 했지만, 제가 다녔던 한 교회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교회예요. 저는 이걸 하지 말아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학생들을 뉴욕시로 데려가곤 했어요. 배링턴 칼리지에서는 1월에 겨울이 있어서 3주가 있었어요.

1월이면, 제 겨울에 3주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3주 동안 학생들을 뉴욕시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그리니치 빌리지의 실험적인 교회가 어떤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일요일에 우리는 그 교회에 갔습니다. Judson Memorial Church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Judson입니다. 그런데 Judson Memorial Church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교회였습니다 . 그리고 저는 제 학생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에 흥미로운 토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해에 갔던 어느 일요일에 목사님이 피아노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은 재즈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피아노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모든 찬송가는 미키

마우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디즈니 노래, 미키 마우스, 데이비 크로켓 같은 노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피아노로 미키 마우스 종교에 대해 설교했기 때문에 교회 아침에 부르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하는 미키 마우스 종교에 맞춰서 디즈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의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아침 찬송가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실험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Judson Memorial Church입니다.

저드슨과 그 주변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저드슨 기념 교회지만 매우 실험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 우리는 또 다른 해를 보냈지만, 그것은 교회에서의 성찬식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성찬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뭘 할지 궁금하네요. 그들은 더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찬식은 코카콜라와 감자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자칩을 돌렸고, 그다음에는 코카콜라를 돌렸고, 이런 식으로 돌렸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Judson Memorial Church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거예요, 사실 다시 강의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다른 교회에 가는 걸 떠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Judson Memorial Church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흥미롭고 이상하고 놀라운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윤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좋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윤리를 강조하는 거죠.

좋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이제 몇 가지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윤리를 강조하고 때로는 건강과 부의 복음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신학적으로 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 더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었지만, 일부 교과서는 여전히 그들을 자유주의 전통에 속한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해 온 종류의 과잉보다 더 신학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 네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때때로 복음의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건강과 부의 복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엘 오스틴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건강과 부의 복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은 헨리 워드 비처와 그들이 그의 데이트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교회의 필립스 브룩스. 두 번째 견학에서 우리는 트리니티 교회에 가서 필립스 브룩스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전통에 더 가까웠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반복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성경, 그리스도로서의 신, 삼위일체 등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 더 자유주의적 전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설교할 때 윤리를 강조했지만, 그들은 예수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이름은 주목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다른 두 이름은 Washington Gladden과 Walter Rauschenbusch입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카터. 워싱턴 글래든과 월터 라우센부시. 이제 라우센부시의 전기를 다 읽으셨군요.

아마 당신은 지금까지 두세 번 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읽을 첫날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장씩 읽는다면, 당신은 아마 세 번 읽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사회 복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의 창시자였습니다.

이제 사회적이지만, 이 두 사람도 신학적으로 잘 근거하고 있고, 삼위일체, 성육신 등에 대한 측면에서도 잘 근거하고 있고, 사실, 라우센부시와 당신의 책에 대해 강의할 때 강조하겠지만, 라우센부시는 복음주의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책의 저자가 라우센부시에게 사용하는 라벨입니다. 그러나 저는 글래든과 라우센부시를 복음의 사회적 부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윤리적 강조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비처와 브룩스의 경우처럼 윤리적이 개인적 강조로 나아갈 수도 있고, 글래든과 라우센부시의 경우처럼 윤리적이 사회적 강조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강조는 그 두 방향 중 하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여기서 카터의 손을 보았습니다. 윤리를 강조하는 거죠. 맞아요, 그는, 당신은 헨리 워드 비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맞아요, 그의 아버지는 레너드 비처였지만, 그는, 아니, 그는 개인주의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강조했고, 그는 비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네 사람은 확실히 정통 기독교의 범위에 속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세 번째, 여기로 돌아가서, 세 번째, 좋아요, 세 번째, 종교적 감정의 중심성, 종교적 감정의 중심성, 미국에서 기독교를 구원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좋아요, 적어두세요. 그것도 교과과정에 있어요. 종교적 감정의 중심성. 오, 알았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리드리히 쉼라이어마허를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적 감정의 중심성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사와 신학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시작해야 해요. 프리드리히 쉼라이어마허에 대한 이야기이고, 여기 프리드리히 쉼라이어마허의 사진이 있어요. 좋아요, 프리드리히 쉼라이어마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칼빈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전에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에 대해 들어보신 분이 몇 명이나 되세요? 누구든지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좋아요,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 그에게 타이틀을 주자. 그냥, 그냥 어딘가에 그를 두자. 때때로 그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 좋아요,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는 독일 신학자였고, 그는 독일에서 미국인들이 이런 전략을 개발하던 것과 같은 위기에 직면했던 독일 신학자였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여기서 조금 더 일찍, 슐라이어마허의 날짜입니다. 좋아요, 그럼 슐라이어마허는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을까요? 그는 기독교와 성경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가 당시 독일에서 직면했던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슐라이어마허는 신이 자신을 종교를 문화적 멸시하는 자들에게 봉사하도록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를 문화적 멸시하는 자들에게 봉사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위아래로 봉사합니다.

그는 독일 사회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그들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목회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기독교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처럼 독일에서 기독교를 구하려고 하지만, 그는 조금 더 일찍 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슐라이어마허에 대해 말할 때마다 저는 항상 긴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긴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텐데, 그건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주시든, 어떤 직업으로 인도하시든,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 노숙자들 등을

대할 것입니다. 제 말은, 여러분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 종류의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일부는 술라이어마허처럼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사회의 권력자를 섬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부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부르심입니다. 종교를 멸시하는 문화인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합법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그런 삶의 자리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게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름이고, 당신은 그 부름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예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프리드리히 술라이어마허는 그가 종교를 멸시하는 문화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사역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방법으로 하기 시작한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한 것은 종교적 감정, 종교적 정서, 그리고 신에 대한 종교적 애착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멸시자들을 기독교로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라이어마허와 종교적 감정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술라이어마허와 미국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교리, 교리, 신학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말 과소평가했고, 어떤 것에 대한 성경의 문자적 해석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단지 우리가 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만 이해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니 교리는 제외되었습니다.

교리는 제외되었습니다. 신학은 제외되었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은 제외되었습니다.

종교적 감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쉘라이어마허에게,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가져왔을 때, 일종의 마음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넓은 문화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다시 치르기 위해 조금 일찍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따라서 Schleiermacher와 미국 국민이 관련된 더 광범위한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과학이 제 역할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이 제 역할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이 제 역할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학이 제 역할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이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이 일하는 종교적 영역은 마음과 개인의 종교적 경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와 과학 사이에 경쟁이 없습니다. 종교와 예술 사이에 경쟁이 없습니다.

종교와 교육 사이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고, 더 넓은 문화권에서 그런 것들과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종교가 되고 기독교를 구원하는 방법이 되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과 연합하여 종교적 감정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위대한 모델이 되는 쉘라이어마허에게, 그리고 쉘라이어마허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종교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의 위대한 모델에게, 위대한 모델은 예수가 됩니다. 물론, 예수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의 위대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서 전투 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